

동양, 벤젠가격 급상승 “희색만면”

메리츠증권, 상반기 영업실적 향상 전망 ... 목표주가 1만8500원 등극

메리츠증권이 6월11일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원료인 벤젠 가격 상승으로 2/4분기에도 뚜렷한 호조세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투자 의견을 <매수>로 제시하고 목표주가를 1만8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.

메리츠증권에 따르면, 동양제철화학(대표 이수영)은 TDI, 카본블랙 등의 마진 감소와 소다회 공장폐쇄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벤젠 등의 제품마진 확대로 2004년 1/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44.2% 증가하는 호조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

1/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.9% 감소한 것이나 2003년 1/4분기 이후 경기가 본격적으로 위축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수익성은 크게 호전된 것이다.

동양제철화학은 제품생산에 석탄계통(콜타르 및 조경유)과 석유계통(O-X, FCC, 나프타)의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데, 카본블랙이나 무수프탈산 등의 생산에 투입되는 석탄계 원료가 40% 가량인 반면, 벤젠(10만톤) 생산에는 대부분 석탄계 원료(조경유)를 사용하고 있다.

현재 POSCO와 장기 공급계약으로 석탄계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고,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경쟁기업에 비해 높은 원가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 영업실적 향상의 원인이 됐다.

또 벤젠 국제가격이 4월 중순 잠시 조정을 보인 후 최근 미국 및 아시아 시장의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2/4분기 영업실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.

메리츠증권의 이희철 연구원은 “동양제철화학의 2/4분기 영업이익도 1/4분기와 비슷한 350억원 내외(전년동기대비 60.7% 상승)를 기록할 것”이라며 “2003년 고합의 PA, 가소제 부문을 인수한 이후로는 자금요소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배당확대도 가능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한편, 동양제철화학은 영업실적이 양호한 자회사 유니드의 상장 추진으로 보유주식 340만주 중 약 59만주를 구주매출 형식으로 매도할 계획이어서 현금유입이 예상되며, 소다회 공장 폐쇄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공장부지(장부가액 3377억원)는 폐석회 처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개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.

<화학저널 2004/06/15>